

한국통신진흥(주)

88년은 「자립경영 기반 확립」의 해

행정전산망 개발자금
지원사업, 정보통신기기 대여와
유지보수, 구내통신 역무제공 등의 사업 펼쳐



▲梁承澤 사장

한국 통신진흥주식회사 (대표 :
梁承澤)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전산망 사업의 효과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지난 86년 5월 21일 설립되었다.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전액 출자로 출범한 KITI의 초창기의 주업무는 행정전산망 추진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성, 전담사업자인 한국데이터통신에 지원하는 일.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앞으로 90년까지 1천 5백 13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소요되는 자금은 자본금 3백억원을 기반으로 국민투자기금·체신금융·회사채 발

행 등을 통해 조달하고 있다.
올해를 「자립경영 기반 확립」의 해로 ▲수행사업의 영업기반 확대 ▲장기경영 발전 기반구축 ▲효율적 경영관리제도 정착을 위해 각 분야에서 활동을 펴오고 있는 KITI는 행정전산망 개발자금 지원사업 외에도 정보통신기기 대여와 유지보수, 구내 교환설비의 검사 지도, 구내통신 역무제공 등에도 역점을 두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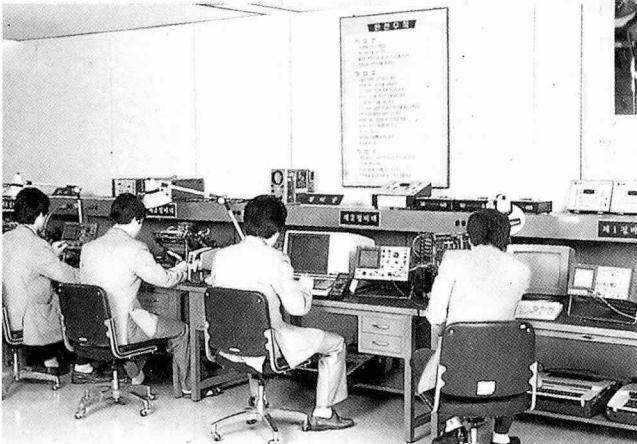
정보통신기기 대여사업은 선진국의 정보통신시장 개방압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내 정보통신기기

의 수요 창출과 보급 촉진을 목적으로 한 사업분야. 정보통신기기를 양도와 환매의 형태로 임대해 주고 있으며, 유지보수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정보통신기기 유지보수 사업은 체신부와 KTA가 보유한 기기를 전문적으로 유지보수하여 보전수준 향상과 보수비용 절감, 품질향상으로 이용자 서비스를 증진키 위한 사업.

여기에서는 주로 공중전보용 및 사제 가입전신기, 인쇄전신기, 전자교환기용 입출력 단말기, 114안내용 터미널, ARS터미널, FAX, 업무용 PC, 서장구분기 등 기계화 우체국 자동화 설비 등을 유지 보수한다. 지난해 7월 서울 목동 국제우체국의 기계화 시설 유지보수 업무에 착수한 바 있으며, 내년도에 시작하게 될 용산 수도권 우편물 집중처리국의 유지보수 업무를 준비 중에 있다.

그리고 구내교환 설비에 대한 감사와 지도 점검업무를 일원화, 가입자에게 이용 편익을 제공하고 설비의 다양화 및 기술발전에 따른 정보통신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구내교환 설비 검사 및 지도 점검 분야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 사업은 준공검사 과정을 통하여 규격자재 사용 및 공법준수 여부 확인과 구내교환 설비 운영에 대한 기술을 지원한다. 또한 정기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공중



▲ T.Q.C 활동이후 처음으로 마련된 T.Q.C 분임조
경진대회

◀ 정보통신단말기 유지보수 업무실 모습

전화망과의 연결에 따른 사용자 교육과 현장서비스를 제공한다.

출범한 지는 4년 남짓하지만 이태껏 실제 행정전산망 사업을 중심으로 국내 전기통신 발전에 한 몫을 단단히 해내고 있는 KITI는 경영의 효율화를 위해 조직의 강화와 함께 인적 자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철저한 사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은 사원간의 협동정신과 인화 정신의 고양을 위한 집단개발교육, 신입사원의 업무 기초능력 배양과 창조정신 함양을 위한 개인개발교육, 그리고 자질향상 교육등 세가지로 나뉘어 실시되고 있다.

또한 이 회사에서는 업무의 생산성 제고·새로운 사풍조성·명랑한 직장 분위기 조성·아이디어 창출 등을 위한 T.Q.C (Total Quality Control) 활동도 왕성하다. 작년 12월부터 시작한

T.Q.C 활동은 자체평가 결과, 이미 정착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에는 '88상반기 분임활동 평가 및 경진대회를 열기도 했다.

정보통신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해 안팎으로實을 다지며,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KITI는 신규사업으로 집단전화 운용과 텔레빌딩 시범운영을 위한 사업을 계획, 이의 본격적인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집단전화운용은 입주업체별로 사설 교환기를 사용하여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통신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계획으로서 KITI의 역점사업이다. 또한 텔레빌딩 시범사업은 국내의 영세한 S/W 업체들에 대해 쾌적한 개발환경과 함께 보다 나은 유통환경을 조성 제공하게 될 사업으로 국내에서는 최초로 시작되는 획기적인 계획이다.

현재 집단전화는 한국화약 사옥에

설치 준비 중에 있으며, 인텔리전트 빌딩 구축을 위해서는 빌딩조성이나 추진방법에 관해 관련기관과 협의, 소프티웨어 창업단지·전시장·영업센터 세부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이외에도 KITI는 행정전산망 부동산 관리업무중 세제관리 추가 및 시급개발로 소요자금을 3~4배액원 증액하고, 정책자금 등 안정적인 저리자금의 조기확보로 적기에 지원하고 정부의 부담을 덜어 줄 계획이다.

정보통신산업 육성을 위해 통신사업개발 및 운용사업에 뛰어들어 발생하는 이익금을 산업지원 자금에 활용하는 등 관련산업의 발전을 위해 해온 KITI에 격려를 보내며, 앞으로 더욱 雄飛하는 KITI를 기대해 본다. ♣